



북한 기도회

2022년 10-11월





기도제목 1.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9월 말부터 연달아 대규모 군사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핵 투발용 미사일 발사 실험부터 포 사격 실험과 대규모 전투기 훈련, NLL 이남으로의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을 강조하고 핵 포기에 대한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남북한을 비롯한 각 국들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2.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 말부터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막혀 있었던 국경이 150일 만에 열린 것으로서 어려운 북한의 경제사정을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국제적인 경제 불안에 따른 환율 폭등과 북한의 부족한 식량 생산 등으로 인해 북한 서민들의 경제사정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법 제정 외에도 청년교양보장법 등 기독교 박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문화 통제 법률을 만들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씨와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4. 중국의 선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지도부 교체와 함께 제로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중국의 코로나 방역 장기화 및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에 대한 언급 등은 동아시아의 긴장은 물론 선교현장에도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간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되고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활하게 북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5. 북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장마당을 넘어 이제 부동산 시장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오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북한 사회에서 시장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시장화의 진전은 주민 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자산가들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 변화의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권력을 지닌 관료와 자산가(돈주)의 결탁, 그로 인한 심각한 부정부패라는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북한 사회가 경제 정의가 증진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아가 신앙과 선교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됩니다. 북한 사회가 부정부패와 배금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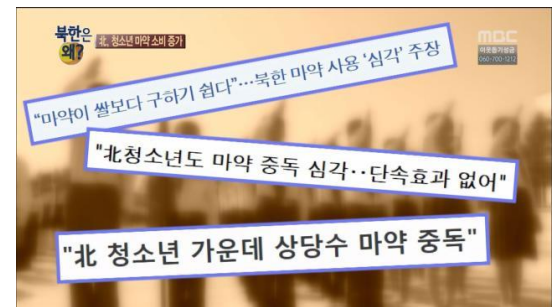
기도제목 6. 북한의 마약 근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빙두(필로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1년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 및 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없는 통제 일변도 대응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공동체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마약을 의료용으로 찾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이 접촉하게 될 마약으로 고통 받는 탈북민들과 북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마약 문제를 쉬쉬하는 것이 아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발생되는 연기를 얇은 관을 이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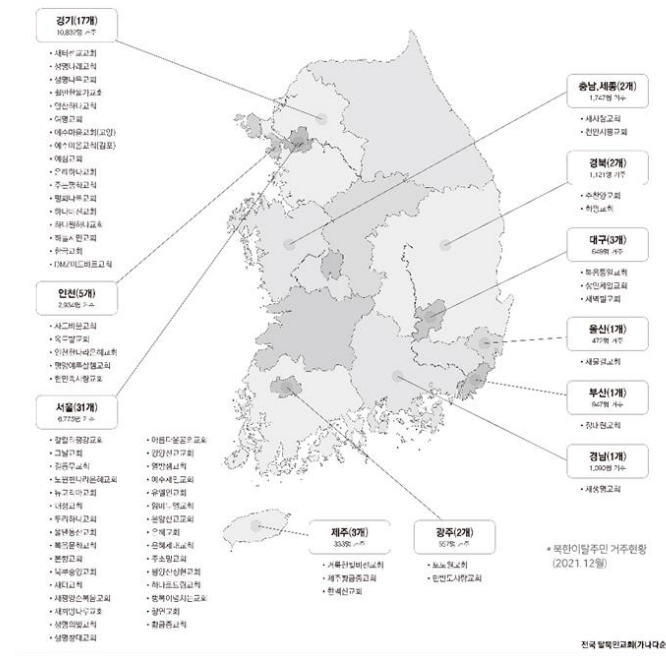
기도제목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탈북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은 탈북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크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우울증으로 인한 탈북민 고독사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펜데믹 완화에 발맞춰 탈북민들과 만나고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교회와 사역자가 세워져야 하지만 탈북민 교회들은 코로나 시기 출석교인수 감소 및 재정 악화로 큰 타격을 입었고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의 탈북민 부서들도 대면 예배 중단 및 교회 여건 악화로 사역이 위축되었습니다.

탈북민 사역을 위한 목회자와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 기도가 꾸준히 이어져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국 탈북민교회 현황 (2022. 5월)

한국에는 현재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져 있고, 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효과적인 북한전교는 바로 탈북민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국 탈북민교회 개교 현황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져 있고, 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효과적인 북한전교는 바로 탈북민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제목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도 올해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프로그램 개편이 잘 이루어지고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